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인민은행, 2011년 통화정책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억제

□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홈페이지를 통해 물가압력과 자산거품 요인인 인플레이션 억제를 2011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발표함.

- 후샤오리엔(胡晓炼) 중국인민은행 부행장은 홈페이지에 거제한 통지문에서 내년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 강화와 자산거품 방지로 설정했다고 발표함.
- 지금의 풍부한 시장 유동성 흡수와 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기존의 기준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, 공개시장조작과 함께 새로운 조치들도 검토 중임을 밝혔으나 새로운 조치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.

□ 최근 두 달만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인민은행은 2011년에도 금리, 지급준비율, 환율 등을 유연하게 조정해 인플레이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.

- 중국인민은행은 12월 통화정책기조 전환 결정* 이후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첫 조치로 12월 25일 두 달만에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기준금리를 0.25%p 인상하는 한편, 지난 10월에 조정하지 않았던 금융기관 대출금리와 재할인금리 등도 인상함.

* 지난 12월 10~12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도 통화정책 기조를 '적절히 완화된 통화정책'에서 '신중한 통화정책(경미한 긴축정책)'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. (키리위클리 해외금융뉴스 2010.12.13자 '중국, 긴축통화정책으로 전환' 편 참조)

- 중국정부가 2011년 1/4분기에도 금리·지급준비율·환율 등 3대 정책수단을 적절히 조합하여 인플레이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, 최근 이코노미스트지는 2011년 금리의 경우 1년만기 예금금리 기준 3.75~4.0%까지 인상, 지급준비율은 23% 수준에서 조정, 환율은 5~6% 절상될 것으로 전망함.

(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, 로이터, 인민일보, 12/28)